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2014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도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성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성 평등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예산이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부사업 및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예산에 대한 분석 없이는 성 주류화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가 현재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충분한 제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를 실제 제도 운영 주체인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주체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제도의 효과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제도의 주요 행위자인 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담당자간 인식차이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관심이 낮아 제도 운영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개인의 관심보다 기관 전체 및 기관 외부 차원의 관심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집단별 인식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주무부서인 예산부서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성인지예산이 분석서로 인식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다. 이에 대표적인 성 분석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의 연계 노력이 요구되며, 성인지예산은 예산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분석으로서의 기능 정립을 통한 연계방안 마련이 예산부서의 책임성과 제도에 대한 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재정, 지방 성인지예산, 성 주류화